

통도사, 아름다운 '문화쉼터' 로의 초대

다정 카페 · 한식집 등 복합문화공간 인기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은 볼까봐 아니라 각박한 현대사회에 지친 일반인들에게도 큰 안식을 안겨준다. 하지만 사찰을 찾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각을 둘러보거나 법당에 들어가 잠시 절을 하고 돌아서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일반인과 불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 통도사는 주차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던 불교용품점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카페 다정'과 '한식집 다정'을 동시에 오픈했다. 통도사의 무풍한송로를 따라 올라오면 마주하게 되는 성보박물관과 그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통도사를 찾는 모든 이들을 제일 먼저 반긴다.

다정 카페의 외부는 단청과 기와로 꾸며져 전통사찰을 닮았다. 덕분에 통도사와 어우러져 튀는 모습 없이 산사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현대적 감각과 오래된 한옥이 주는 우아함이 더해져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고전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밖으로는 영축산을 배경으로 바람과 물만 다닌다는 청류동천(淸流洞天)이 흐르며 그와 함께 천년이 넘는 노송, 아름다운 삼성반월교(三星半月橋)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개산대제에 맞춰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하루 150여 명이 방문해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비수기인 지금도 하루 50여 명은 꾸준히 찾고 있다.

커피 원두와 다식 메뉴도 주지 영배 스님이 직접 선정했다. 최상급의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원두를 블렌딩한 아메리카노와 겨울을 맞아 레몬 유자티 등 다양한 차를 준비하는 전문 바리스타가 항상 대기한다.

경내 풍광 한눈에 조망 가능

겨울에도 매일 50여 명 찾아

방문객 위한 건강 사찰음식도

"사찰 찾는 이들이 이곳 주인"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한 한식집에는 사찰음식으로 메뉴를 선택했지만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마련했다. 연잎 갈국수, 산채 비빔밥, 두부요리 등 준비된 메뉴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채웠다.

일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조리를 맡은 조은숙 주방장은 두 달에 한 번



최근 통도사가 관광객들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구체화하고 있다. 통도사 다정 카페 내부 전경.

씩 자비도량에서 진행되는 사찰음식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다. 모든 재료는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영농법원에서 제공된다. 모든 것이 국산이라는 의미다.

또한 두부는 1월 8일 문을 연 조포정에서 생산된다. '조포'는 경상도 방언으로 두부를 의미하는 말로써 조선시대 유명했던 통도사가 생산한 두부의 전통을 찾고 스님들의 공양을 위해 새롭게 설립됐다. 조포정은 방장 원명 스님이 지은 이름으로 현재 한식당 바로 뒤편에 위치한다. 응고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하며 풍은 통도사와 장영에서 직접 공수해 맛도 탁월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두부

는 다정 한식당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쉼터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육화당(六和堂)이 곧 비워진다. 종무소는 이전에 사용했던 명월당(明月堂)으로 옮기며 육화당은 문화공간 및 쉼터로 꾸며질 예정이다.

교무국장 진응 스님은 "주지 스님께서 '사찰을 찾는 불자와 사람들이 이곳의 주인'이라고 항상 강조하신다"며 "카페는 문화포교를 위한 시작점이다. 주지 인기 시작 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복합문화공간을 위해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선운사, 을미년 동안거 포살법회

조계종 24교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8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을미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선운사 대종스님들과 참담암, 도솔암, 석상암 등 산내암자 및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학인스님, 말사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사진 아래>

이날 포살법회는 주지 경우 스님이 포살법사를 맡아 예경삼보에 이어 조계종단의 <법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경우 스님은 법문에서 '대중이 모여 화합할 목적'을 대중에게 물었다. 이 같은 물음에 대중은 "포살계를 살아야 포살을 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후

사부대중은 <불설법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한 뒤 계율을 준수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했다.

한편 포살법회 후에는 선운사 주지를 역임하며 선운사의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 대종사 18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이날 추모제에서 법만 스님은 태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해 "은사스님의 18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늘 가르침을 깊이 새겨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병신년 신년하례법회

금산사(주지 성우)는 1월 9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새해를 맞아 교구 본말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전복발전과 불교중흥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아래>

신년하례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실상사 주지 응묵 스님 등 교구본말사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각 신년하례법회 등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운문선사의 일일시호일(日日時好日)을 인용해 "오늘이라는 시간은 일생동안 단 한 번밖에 없다"며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할 때 날마다 좋은 날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천상에 태어나는 무한

한 복락은 특별한 비법이 없다"며 "정법에 입각해 진실을 말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생명을 보살피고 돕는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고 지상에서도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새해에도 날마다 좋은 날이 이어지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올 상반기 중 금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완공하고 2월 중으로 혁신도시 포교당 기원정사 기공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기2559년 중무지도감사에서 전법과 포교, 가람수호와 중무행정 전반에 걸쳐 우수사찰로 선정된 익산 연곡사 주지 묘주 스님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 포교대상은 나유인 신도회 부회장과 정완동 은적사 거사회 운영회장이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통도사·진주시 燈축제 MOU 체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와 진주시(시장 이창희), 진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용호)은 1월 13일 문화축제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통도사 문화축제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주시청 5층 상황실에서 체결된 이번 MOU 세부사항은 진주시 유등축제의 등(燈)을 통도사에 대여할 것과 등 구매 및 기술을 협력하고, 통도사는 문화축제 때 협찬처를 게재하며 사보를 통해 유등축제를 홍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총무국장 도문 스님, 총무과장 호법 스님, 기획과장 명조 스님, 이창희 진주시장, 최용호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석장호 진주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사)착한벗들, '다꿈티움' 어린이 겨울캠프

다문화가정 이해 도모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이 '2016 다꿈티움 어린이 겨울캠프'를 개최했다.

1월 8일~10일까지 참좋은우리집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어린이 겨울캠프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비 다문화가정 아동 35명이 동참했다.

캠프는 어린이보호 지도법사인 무구스님의 지도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배려·협력 인성을 가꾸고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나무 인성교육, 명상 및 미술 놀이, 한국민속 및 베트남 전통놀이, 모악랜드 눈썰매 놀이, 세계문화체험, 발



착한벗들 겨울캠프에서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우공양, 미니 올림픽 등 놀이프로그램과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해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놀이 등을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난타 공연과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기를 펼치는 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 공모제협동 진행됐으며 어린이 오예 수계식을 마

치막으로 회향했다. 착한벗들 대표 회일 스님은 "이번 겨울캠프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접할 수 있어서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능시험 없이! 내신성적 없이!

불교학 학사 학위에 도전하십시오!

불교학을 공부하고 싶으셨지만 때를 놓치신 분, 은퇴 후 포교활동을 위해 전문적인 교리공부가 필요하신 분,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보다 깊이 있는 불교학 연구를 하고 싶으신 사찰 주지스님.

이제 수능시험 없이도 학점은행제 불교학 전공과정에 입학해 동국대학교 총장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02) 2260-8996 / dgu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 평생교육원



2016년 1학기 신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전공 학사학위과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중퇴자 및 4년제 대학 졸업자
모집기간 · 2016년 2월 26일 (금)까지 (2차 모집)
접수서류 · 주민등록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진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edulife.dongguk.edu)
· 방문접수 : 동국대 평생교육원 행정팀
모집분야 · 주중과정 (매주 월, 화 10:00 ~ 17:00 수업)
· 주말과정 (매주 토 09:00 ~ 21:00 수업)

